

## 한국 언어 · 문화 · 문학의 통합 교육 방안 연구

-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

김미선\*

### <목 차>

1. 서론
2. 한국어 문화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의 연구 현황
3. 교재분석 결과
4. <진달래꽃>을 활용한 한국 언어 · 문화 · 문학의  
통합 교육 방안
  - 4.1. <진달래꽃>의 교육적 의의
  - 4.2. 교수 학습 설계
  - 4.3. 실제 수업 예시 및 결과
5. 결론 및 방향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문화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의 연구 현황과 기존의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활용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5급을 대상으로 언어 · 문화 · 문학의 통합적 교육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학 텍스트가 단순히 언어교육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언어와 문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언어 · 문화 · 문학 학습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모색하였다.

\* 숙명여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을 따라 실제로 시 수업을 통해 언어학습 측면에서는 문학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표현과 문학 언어를 바탕으로 고급스러운 언어를 학습하였다. 또한 문화학습 측면에서는 시적 화자의 태도에서 과거 전통적인 여성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자세를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인 김소월과 당시 시대적 배경을 통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모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기회를 가졌다. 문학 학습 측면에서는 시의 기본적인 형식, 리듬을 만드는 요소, 의미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비유와 상징을 학습해 고급스런 언어로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진정한 통합 교육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문화 교육, 문학 교육, 문학 텍스트, 시, 통합 교육

## 1. 서론

초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 목적의 실용적인 언어 사용과 언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형 연습과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과 집단이 다양화<sup>1)</sup>되면서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형과 표현 사용을 넘어 한국 사회와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와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을 대화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한 발화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때, 언어적 지식의 교육과 더불어 그 언어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수 있게 하는 문화 지식의 교육은 필수적이다.(유현정, 2015, 432쪽) 이는 초급에서 중·고급으로 갈수록 이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된다.

특히 대학교 한국어 정규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대학교나 대학원에 수학하기를 원하는 학문목적 학습자들인데 단순히 문법의 학습과 연습 활용만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학습자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지적한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와 함께 실용적이고 고급스러운 언어사용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문화 교육에 대한 필

1) 일반목적/ 학문목적/ 직업목적/ 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이주배경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은 고급스러운 언어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와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며 효율적인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윤여탁(1999)을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의 사용은 문화 교육을 위한 좋은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언어학습 현장에서 문화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차원에서든 언어교육을 위한 도구적 측면에서든 문학 텍스트의 가치를 인정하며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을 보면 여전히 언어 수업을 위한 도구나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문화 소개하기 항목 중 하나로 ‘쉬어가기 코너’로 문학작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교사 입장에서 정해진 교과과정 내에 소화하기 어려워 자세히 다루는 데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요소들, 문학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비유나 상징, 함축적 의미로 인해 깊이 있는 학습이 어렵다는 인식이 문학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교육하기에 어렵다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교사로서는 필자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겠지만 몇몇 교재 분석 자료를 보면, 문학작품이 실리지 않은 교재가 다수이고, 제시되어 있더라도 단순한 소개, 읽어보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4)은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수-학습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문학 제재를 통해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사회·문화 교육, 문학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통합적 문학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고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언어, 문화와 문학의 통합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문학 장르의 하나인 시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시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시는 텍스트가 짧아서 교수자와 학습자 입장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어 접근이 쉬운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문학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적 요소를 추출할 수 있어 한국어 문화교육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넘어 언어의 4가지 기능과 언어·문화·문학교육의 통합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수준 높은 고급 언어 학습자가 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 의의를 가지고 전개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습자는 성인 학습자들이며 이들의 축적된 언어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둘 수 없을 만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2)</sup> 그러므로 언어·문화·문학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그 3가지 측면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한다면 모든 영역이 향상되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는 앞선 연구들에서 지적했듯이, 문학 텍스트에 있는 문화적, 문학적 요소를 학습하는 데에는 언어 숙달도가 낮은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이어간다. 또한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 방향은 단계적이지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sup>3)</sup> 언어 수준을 고려해 고급 단계인 5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문화·문학 학습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교재에 시가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시를 학습하는 활동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5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활용해 한국 언어·문화·문학을 통합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제 수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2. 한국어 문화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의 연구 현황

국내 대학교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법 학습과 일상생활 언어를 중심으

2) 강소영, 「수필 문학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법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 13권 제2호, 2014, 330쪽.

3) 이정원(2012),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27집, 2012, 41쪽.

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향했다면 1990년대 말부터 실용적 목적의 단순한 언어 사용을 넘어 문화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한국문학 작품을 한국어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윤여탁(2003)에서는 여전히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당위성을 실현하는 데에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학 언어가 실제로 일상의 언어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문학을 활용해 의사소통 교육과 사회 문화 교육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문학 교육 자체만으로도 고급스러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윤여탁(1999, 2003)의 문학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의 흐름을 따라 최근 10년간의 문학 활용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문학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언어의 4가지를 어떻게 통합해서 문학 작품을 활용해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신윤경, 2008), 기존의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서 논의된 비교문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현대시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다.(윤여탁·오지혜, 2010)

또한 학습 목적에 따라 학습 대상이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로는 양영희(2013), 우혜경(2011), 이가원(2012)이 있다. 먼저 양영희(2013)는 고급 단계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절한 문학 작품 선정 조건<sup>5)</sup>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교수, 학습법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와 쓰기 교수 활동 방안, 문화 이해를 위한 방안, 문학 자체에 대한 감상을 위한 활동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우혜경(2011)은 다문화

4) 윤여탁(2003:145)은 일상적인 언어나 대중 매체에서 찾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언어로서의 문학 언어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묘사하기, 이야기하기, 비유하기, 상징하기, 풍자하기, 전달하기 등의 언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5) (예비) 학부모로서 읽어야 할 작품,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 타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 한국 문학 자체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문학』, 『문법과 독서』를 참조하여 장르별로 몇 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지문을 활용해 읽기 활동, 어휘와 문법 지도, 속담과 관용표현 지도와 가치관 교육을 위한 과정중심의 수업 설계에 따라 실제 수업을 한 사례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가원(2012)은 학문목적 외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의사소통에는 문제없으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문학텍스트를 활용해 패러디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시, 광고, 만화, 수필 등의 다양한 장르를 읽기 활동 자료로 활용해 10주간 실시한 후 학습자들의 반응과 효과를 알아 보았다.

세 번째는 다양한 장르로 연구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전소설 <심청전>을 활용한 이정원(2012), 수필 어효선의 <남의 옷>을 활용한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을 꾀한 강소영(2014)이 있다. 이정원(2012)은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언급하며 <심청전>이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의사소통 측면, 사회·문화 측면, 문학교육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고전소설의 개작 가능성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과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활용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강소영(2014)은 한국 언어·문화 통합교육을 위해 수필을 활용한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수필의 가치<sup>6)</sup>를 정리하며 <우리 옷>에 나타난 문화를 성취, 행위, 관념 문화로 세분화했으며 텍스트에 나타난 고급스러운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학습자의 수준, 교과 과정, 텍스트의 분량 등 학습 적용을 위해서 고려할 부분들을 한계점으로 남겨 두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한옥순(2013)은 김춘수 <꽃>을 활용해 현대시 감상문 작성능력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춘수의 <시>를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목표어인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방법으로 목표어와 모국어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게 하고 한국어 원

6) 수필을 읽는 매력인 깨달음, 자유로운 글, 일상에서 개인이 겪은 주관적인 체험을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한 글, 수필에 나타나는 인물, 사물 등의 보편적인 특징의 소재와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작가의 정서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를 이해할 수 있으며 분량이 짧아 비교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문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본 후, 재귀 번역 텍스트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써 보도록 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이 한국 언어 교육 측면에서 논의된 것이라면, 윤여탁(2013)과 유현정(2015)은 한국의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윤여탁(2013)은 문화의 범주를 성취문화, 행위문화, 관념문화로 나누고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문화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기행문,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대표작품을 하나씩 선정해 기행문 <자이푸르 여행기>는 초급 인도·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대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중급 중국어권 학습자, 현대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고급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 학습 가능한 문화항목을 분석해 실제 수업활동을 진행하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현정(2015)은 먼저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한국 문학이 한국어 교재에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어떤 수업 활동으로 이루어졌는지 교재를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단순한 언어 교육 차원을 넘어 문화 교육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한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면, 접근 가능성이 쉬운 시를 중심으로 수필, 고전소설, 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연구와 구체적인 방법, 한국어 교육을 넘어 한국 문화 교육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측면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 비교문화적 방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고 학습 목적에 따른 학문 목적, 다문화 여성, 다문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서 중급과 초급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단순한 언어 교육 차원이 아닌, 문화 교육 차원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시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어떻게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필 것이다.

### 3. 교재분석 결과

한국어 교재에서 어떠한 시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4개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쓰이고 있는 교재를<sup>7)</sup>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문학작품 중에서도 시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제시방식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기능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의 연계성이 있는지, 단원의 주제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고려대에서 출간된 『재미있는 한국어』의 일러두기에서 문화항목의 언급을 보면,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문화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학생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서는 일러두기에서 언급한 대로 각 단원마다 주제와 관련된 문화항목을 쉬어가기 코너 형식으로 대부분 성취문화와 관련한 문화재, 예절, 교통 등 일상생활 문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시는 고급 학습자를 위한 5급 교재에서 5과 <한국의 시와 수필>이라는 단원에서만 4편이 수록되었다.

5급 교재의 ‘5과 한국의 시와 수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부분은 ‘생각해 보기’ 단계로, 제목이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진을 보고 전체적인 느낌과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입을 시작한다. 다음 단계는 ‘작품 즐기기’ 단계로, 작가 소개와 시에 사용된 새로운 문법 제시, 그리고 시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내용과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단계인 ‘작품으로 놀기’에서는 시적화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제와 연결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정규과정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통합 교재로서 고려대 한국어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6』, 2008~2010년 출간, 연세대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 1~6』, 연세대 출판부, 2013년, 서울대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1~5』, 2013~2015년 출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6』, 2011년 출간된 4개 기관의 정규과정에서 쓰이는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는데 서울대와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는 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고려대와 이화여대 교재에 수록된 시 관련 분석 내용만 정리하였다.



그러나 시를 해석하고 깊이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단 시의 내용과 관련해 제시된 질문만으로 시의 해석이 잘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시의 형식적 특징, 문학 언어로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각각의 작품 모두 한국의 대표 정전으로 손꼽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나 질문 내용이 유사해 작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문학 장르의 하나인 시가 가지는 특징, 시어의 함축성, 상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과 비유법 등의 설명과 이해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말하기·듣기·쓰기·읽기 등의 언어기능을 통합해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표작품으로 실린 4개의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sup>8)</sup>이 비슷한 시기라서 한국의 다양한 사회, 역사적 배경을 포함한 문화를 교육하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 수록된 시 학습을 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교재분석-『재미있는 한국어』

단원	제목	학습 단계 및 내용		
		생각해 보기	작품 즐기기	작품으로 놀기
5과 한국의 시와 수필	김소월의 〈진달래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이나 그림 보고 느낌 이야기하기</li> <li>· 시 읽고 전체적인 느낌 이야기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본문과 관련된 내용 설명과 질문을 통한 해석</li> <li>· 낭독하며 감상한 후 느낌 이야기하기</li> <li>· 작가 소개</li> <li>· 문법 더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적 화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마지막 행을 바꾸어 표현하기,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작중 화자에게 편지 쓰기 등</li> </ul>
	윤동주의 〈서시〉			
	김춘수의 〈꽃〉			
	조지훈 〈승무〉			

다음으로 이화여대에서 출간된 『이화한국어』는 6급을 제외한 1급부터 5급까지 전 단계에 이르러 문학작품을 수록하였다. 그 중에서도 시는 29편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는데 다양한 시 작품을 통해 한국문화 교육과 연결하려는

8) 김소월(1902~1934)의 〈진달래꽃〉은 1925년, 윤동주(1917~1945)의 〈서시〉는 1941년에 창작해 1948년에 발표, 김춘수(1922~2004)의 〈꽃〉은 1952년에 발표, 조지훈(1920~1968)의 〈승무〉는 1939년에 발표되었다.

연구의 흐름에서 봤을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sup>9)</sup> 그러나 교재구성과 사용법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한국 문학을 접해 보고 감상해 보는 부분이며 단원 주제와 연관된 내용, 단원의 문법이 활용된 작품 중에서 초급(중급, 고급)에 적절한 것을 수록하였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29편이라는 양적으로 많은 시 작품들을 신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주제와의 연관성도 다소 떨어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1급의 6과 주제는 ‘주말’로 주말 활동과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문학 맛보기에 제시된 시는 고정희의 <고백>이라는 시이다. 물론 학습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짧은 시를 제시해서 학습자들이 부담을 덜 느낄 수는 있겠지만 ‘V-는’ 관형형은 1급의 가장 마지막 단원인 15과의 목표학습 문법이므로 6과에 제시된 시는 언어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화 한국어』는 초급에서는 대체로 짧은 시를 제시했거나 긴 시를 중략해서 학습자들이 읽는 데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며 시어가 가진 함축적 의미가 적은 시들을 선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고 부담이 없으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감상 및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초·중급에서 짧은 분량의 시들이 타 대학 교재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실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계별로 적절한 언어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이 가진 특성, 즉 시를 활용해 교육하려는 목적에 부합한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어려운 단어는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따로 제시해 놓았지만 한 단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련된 새로운 단어의 양이 많아 오히려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를 통한 제대로 된 문학작품 감상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1급의 13과 ‘전화’에서는 문인수의 <통화>라는 시가 제시되었는데 시 본문에 ‘거기는 비 온다고?’의 간접인용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학습자의 언어로 번역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해당 단원의 목표 문법에는 맞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sup>10)</sup>

9) 유현정(2015)의 연구에서 교재 분석 자료를 보면, 『이화 한국어』에 수록된 문학작품은 총 56편으로 시, 소설, 수필, 설화, 시조, 동시, 민요, 판소리, 노래 등 다양한 장르가 수록되었는데 시는 총 29편이 수록되었다.

1급~ 4급까지는 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해석 없이 감상하고 느낌과 경험을 말하는 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된 시와 관련된 질문들이 단순하게 시를 읽고 느낌이 어떤지, 주제와 관련된 경험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언어의 4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말하기와 듣기에만 편중되어 있다. 기존의 여타 교재들에서 쉬어가기 코너처럼 잠깐 읽고 넘어가는 형식이라기엔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으나 자세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4급의 7과 ‘명절과 기념일’에 제시된 문학 기행에 <설날 아침에>라는 시를 통해 설날을 맞이하는 시인의 태도와 인생관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말하는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교재의 학습 방식이 시를 낭송하면서 감상해 본 후 느낌이나 생각을 말해 보는 것으로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문화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국은 친척집을 방문해 절을 하고 덕담을 나누는 설날 아침의 풍경이 있는데 베트남은 1월 1일 12시 이후에 집주인이 자기와 궁합에 맞는 좋은 사람을 미리 정해서 그 사람에게 집을 방문해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기로 미리 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해에 집주인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으로, 만약에 초대 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그 해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새해 첫 날에는 남의 집에 함부로 가지 않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나라마다 비슷한 혹은 다른 문화를 비교해 보고 이해를 확장하고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다고 본다.

초·중급 교재와 달리 고급인 5급과 6급<sup>11)</sup>은 총 10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는 5급 10단원 ‘예술과 문학’이라는 단원의 PART 2에서 제시되어 있다. 시에 사용된 문법과 새로운 어휘를 바탕으로 본문 내용을 학습한 후 시를 읽고 시 텍스트와 관련된 문제를 통해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비유하기 연습을 한 후 모방시 쓰기 활동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10) 간접인용은 『이화한국어 3-1』의 ‘6과 소식과 정보’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11) 5급과 6급의 단원 구성은 비슷한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견해를 반영해 1~4급 교재의 구성 형식과 달리 대학교육에 필요한 실용문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시는 5급에서만 제시되었고 6급에서는 소설의 일부 내용만 제시해 다루고 있다.

교재에 수록된 전체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재분석-『이화 한국어』

단계	수록된 시 제목	출현 횟수
1급	개구리(한하운), 일요일 행진곡(김기림), 섬(정현중), 고백(고정희),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새로운 길(윤동주), 통화(문인수), 피아노(전 봉건)	8
2급	나비(이준관), 어머니(한하운), 선물(피천득), 너를 기다리는 동안(황 지우), 은행잎 편지(김한룡), 자전거(김종길),	6
3급	딸을 위한 시(마종하),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김용택),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모든 순간이 꽃봉 오리인 것을(정현중), 꽃(김춘수), 우리가 눈발이라면(안도현)	7
4급	저녁에(김광섭),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장정일),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천상병), 칼국수(문인수), 설날 아침에(김종길), 저문 강에 삼을 씻고(정희성)	6
5급	귀천(천상병), 내 마음은(김동명)	2
6급	없음	0

아래 표를 보면, 각 급별로 제시된 학습 내용이, 초급·중급·고급이라는  
숙달도 단계에 따라 시를 제시하는 방법이나 학습 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그렇다면 굳이 함축적, 비유적  
의미가 특징인 시를 제시할 필요 없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장르의 텍스트를  
가져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화 한국어』교재에서는 ‘끼워 넣기 식’  
이나 ‘쉬어가기 코너<sup>13)</sup>’ 형식이 아닌 여타 교재들에 비해 다소 비중 있게 제  
시되어 있으나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 단원에서 학습해

12) 1급부터 4급까지 교재는 총 1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문화&문학 항목으로 따로 제시를 했지만 5급은 이전 단계의 구성 체계와 달리 10개 단  
원 중에서 마지막 단원인 10과 ‘예술과 문학’이라는 단원의 PART2에서 시에 사용된 문  
형과 연습, 작가 소개, 시 본문 전체와 새로운 단어가 제시되어 있고 시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으로 시에 대한 내용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시간에 같이 읽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지면의 한계 때  
문에 학생 스스로 읽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몇몇 교재들에서는 문화·문학을 형식적으  
로만 제시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야 하는 문법과 어휘, 언어기능을 반영한 활동도 많고 ‘문화와 생활’, ‘문학 기행’이라는 부분으로 각 1쪽씩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서 최소한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분량이기 때문이다.

〈표 3〉 『이화 한국어』에 제시된 문학 학습 내용

단계	단원	제목	제시된 학습 내용
1급	4단원 여행	섬 (정현중)	1.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물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섬>을 낭송하면서 감상해 보세요. 3.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람들 사이에 _____고 싶다.</div>
2급	12과 교통 과 생활	자전거 (김종길)	1. 그림을 보고 느낌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2.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 느낌을 생각하며 낭송해 보세요. 3. 여러분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대비하여 준비할 때가 있지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3급	6과 소식 과 정보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1. 친구나 가족들에게서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2. 시를 읽고 감상해 보세요. (1) 시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2) ‘당신’과 ‘나’는 어떤 사이인 것 같습니까? 3. 아름다운 것이나 좋은 것을 보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4급	3과 TV와 생활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꼬고 결 수 있다면 (장정일)	1. 제목을 보고 시의 내용을 추측해 보세요. 2.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대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세요. (1) 시 속에서 ‘단추를 눌러 주다’의 의미는? (2)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대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3.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시는 언어 자료로서, 문화 자료로서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시에는 시가 쓰인 당시 시대적 배경, 시적 화자의 태도를 통해 본 가치관 등의 문화 교육과 고급스러운 언어 교육과 문학적 기교를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단순히 시를 읽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시문학 텍스트의 사용은 문화 교육을 위한 좋은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에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활용해 언어·문화·문학적 측면을 통합해 시에 드러난 문화요소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문학적 특징을 학습해 고급스러운 언어학습을 교육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의 교육적 의의를 알아본 후 5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문화·문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활동을 제시해 실제로 수업에 활용해 보고자 한다.

#### 4. <진달래꽃>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 문학의 통합 교육 방안

##### 4.1. <진달래꽃>의 교육적 의의

문학교육은 언어 능력으로서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신장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며 문학 작품에서 일상어를 바탕으로 풍부하게 구사되고 있는 구어적/관용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의 특징인 심미적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호, 2014)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 인물들의 사상, 감정, 관습, 소유물, 관계, 가치관, 태도를 통해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민현식, 1996:120, 김진호 2014, 재인용)

많은 연구자들이 문학 교육의 효용성을 주장하며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언어와 문학을 접목해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육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는 길이가 짧은 점, 문장 단위의 암기를 용이하게 하고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의 리듬감, 압축되고 절제된 시의 어휘가 학습자의 흥미와 표현 의욕을 불러 일으켜 말하기와 글쓰기에 도움이 되며 시의 모호성이 사물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길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김연희, 2010) Carter와 Long(1991), Collie와 Slater(1987), Silberstein(1994)에 의하면 영어 교실에서 사용할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문학 작품의 언어적 수준, 문학 작품의 주제, 문학 작품

의 시기, 문학 작품의 장르, 문학 작품의 길이, 문학 작품의 대표성 및 중요도 등의 6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김은주, 2001, 재인용) 이러한 6가지 기준의 부합 여부가 본고에서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작품으로 선정할 이유와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학 작품의 언어적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데, 학습자가 초보 단계일 경우 텍스트를 쉬운 어휘로 바꾸거나 단순화할 수 있으나 단순화된 텍스트보다 원문을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반영해 생각해 본다면, 5급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를 봤을 때, <진달래꽃> 원문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문학 작품의 주제로 사랑, 질투, 미움, 원망, 이별, 가족애, 자연 친화 등의 기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universal) 인간사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사랑과 이별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적, 나이, 언어권, 문화권 등에 상관 없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 문학 작품의 시기와 관련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1925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진달래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거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다소 있어서 난해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겠으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국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성인학습자들로서 당시 시대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또한 한국의 문화교육 측면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문화요소가 많으므로 당시의 시대적·문화적 배경, 한국인의 가치관 등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본다.

넷째, 문학 작품의 장르와 작품의 길이 측면에서 텍스트를 접했을 때, 시는 짧아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므로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좋다. 물론 시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함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문학 언어가 가진 특징은 한국문학만이 가진 특징이 아닌, 세계 문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문제없다.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의 대표성 및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한국 문학 중에서 특히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로서 손색이 없으며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시인 중 한 사람이며 가장 애송되는 시 중 하나로 한국 문학사적으로 현대 순수시, 서정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가치

있으며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사랑, 이별, 가족애, 우정 등), 동시에 한국적인 특수성(예절, 역사, 문화, 효 등)을 담고 있으며 다소 난해할 수 있지만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난이도, 문학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작품이며 한국인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선정하였다. 시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진달래꽃

김소월(1902~1934)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14)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4)은 문헌적인 이론연구,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조사와 통계,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을 고전문학(고전시가, 고전산문, 설화기타)과 현대문학(현대시, 현대소설, 수필회곡)으로 나누어 목록화하였다.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좋은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 목적에 맞는 교수단계와 그에 따라 활용 가능한 과제와 활동을 구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효율적인 학습 방안에 따른 활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4.2. 교수 학습 설계

강소영(2014)에서 한국 언어·문화 통합 교육의 측면에서 문학 장르 중에서 수필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수업 모형을 6단계로 나누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 1단계로 **【흥미유발 단계】**, 2단계는 언어·문화·문학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언어·문화·문학 통합 학습 단계】**로, 3단계는 앞에서 이루어진 문화 소통을 위한 **【상호문화소통 단계】**, 마지막 4단계는 **【내재화 단계】**로 설정하였다. 언어·문화·문학 교육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따라 <진달래꽃>을 활용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구성해 보았다.

### 1단계- 흥미유발 단계

#### ① 삼행시 짓기

삼행시 짓기는 텔레비전이나 TV 등 오락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임의 일종으로 소개하며, 시 창작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시 창작의 한 맥락에서 연관 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유로운 발상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 ② 사진이나 동영상 등 시청각자료 활용하기

우선 학습자들이 ‘시’라는 장르를 떠올렸을 때 느끼는 부담감과 어렵다는 인식을 덜어주기 위해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다. 시 <진달래꽃>의 중심소재인 ‘진달래꽃’ 사진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진달래꽃을 본 경험, 진달래꽃의 이미지가 어떤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또한 마야의 <진달래꽃>이라는 노래 영상을 들으면서 한국인의 애송시인 <진달래꽃>의 친숙함과 대중

성의 정서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진달래 화전, 전국의 진달래 축제 사진으로 한국인과 함께해 온 서민적인 꽃이라는 이미지와 친근한 정서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 2단계- 언어·문화·문학 통합 학습 단계

### ① 언어 학습

#### - 전략적인 읽기 단계(듣기 통합)

시의 특징을 살린 낭송을 들은 후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또한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남자, 여자, 어린 아이 등) 유추해서 말해볼 수 있다. 또한 한 학생이 낭송을 하고 그 낭송을 듣고 2명의 학생은 낭송에 따라 시적화자와 상대역이 되어 행동을 취해 본다.

#### - 어휘 및 문형 제시

시 텍스트에 사용된 문체와 관련한 문형을 학습한다. 먼저 ‘아/어요’나 - ‘(스)비니다’ 문체와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런 어투를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본 후 사극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투임을 영상을 통해 간단히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예문으로 제시해 주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슷한 단어도 함께 제시해 시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특징을 설명한다.

#### 어휘 제시

역겨워(역겹다): 마음에 거슬리고 싫어

예) 지하철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서 나도 모르게 입을 손으로 가렸다.

고이: 곱게

영변, 약산: 평안북도의 지명(북한).

아름: 두 팔로 안았을 때 양.

사뿐히: 가볍게

즈러 밟다(지러 밟다): ‘눌러’의 평안북도 사투리

**문형 제시**

-오-15)

에스러운 표현으로, 매우 공손함을 나타낸다. 사극에서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합니다’대신 ‘하옵니다’와 같이 말한다.

**② 문학학습**

시 본문에 나온 비유법과 시어의 특징 등의 표현을 통해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문학적 어휘에 내재되어 있는 정서와 한국인의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지식전달이나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이 되지 않도록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내재화 단계에서의 시 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 학습 단계로 볼 수 있다.

**- 형식적인 특징**

시의 기본적인 형식은 연과 행 구분이 있으며 <진달래꽃>은 3음보와 7·5조의 반복을 통한 율격을 형성하며 1연과 4연의 비슷한 구조를 이루는 수미쌍관법의 안정감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우리다’의 각운을 반복해 운율을 형성한다. 시의 운율감은 동요나 가요에 활용 가능해 시와 노래의 근접성을 연결할 수 있다.<sup>15)</sup>

**- 시에 사용된 표현법 익히기**

시에 사용되는 시어의 특징(함축적, 내포적 의미), 특히 진달래꽃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 본문에 사용된 반어법이 사용된 예를 제시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예를 제시해 유의미하도록 한다. 창의적인 시 창작을 위해 직유법, 의인법, 은유법 등의 기본적인 표현도 함께 가르칠 수 있다. 반어법은 완곡어법에 익숙한 한국인의 언어 사용방식이나 사고방식과 연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못 본 학생에게 어머

15) 『재미있는 한국어』, 고려대 한국어교육센터, 2009~2010.

16) 학습자들이 전문용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진달래꽃>의 형식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율격, 음보, 수미쌍관법 등의 용어는 제시하지 않고 이해를 위해 이런 특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만 제시한다.

나나 친구가 “잘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완곡어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의 도치법은 시에서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특별한 효과를 위해 자리를 바꿔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반복법 역시 음악성과 텍스트 분량의 짧은 특성을 가진 시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 ③ 문화학습

외국인 학습자들이 시 텍스트에 반영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언어나 문학 학습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에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찾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우선 작품 속에 반영된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 추출해 본다면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학습자들의 이해를 위해 시가 발표된 1925년 전후의 세계적인 역사적 흐름과 김소월(1902~1934)의 생애에 대해서 과제로 조사해 오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한 후 교사는 시각자료를 활용해 당시 1920년대와 30년대의 시대적 특징과 김소월의 시인으로서의 업적과 대표작품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정리한다.

Hammerly(1986)는 문화를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분류했는데, 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sup>17)</sup>

- 정보문화(informational culture):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모국어 화자들이 그들의 사회, 지리, 역사, 영웅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
- 행동문화(behavioral culture): 일상생활의 총체를 지칭. 한 사회 속에서 한 민족이 행동하는 양식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환경과 전통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
- 성취문화(achievement culture): 목표언어 문화에서 성취된 업적

Hammerly(1986)의 분류를 따라 <진달래꽃>에서 추출한 문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7) 강현화·이미혜 공저(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49쪽.

- **정보문화:** 작가 김소월(1902~1934)에 대한 소개와 역사적 배경 소개(1차 세계전쟁의 세계적인 흐름(1914~1918년)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지명 소개 (영변, 약산), 진달래꽃<sup>18)</sup> 소개(한국의 사계절 중에서 봄을 대표하는 꽃이며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춘궁기에 진달래꽃을 따 먹어 배고픔을 면하기도 했다는 정보를 통해 한국인에게 친숙한 정서의 꽃) 등을 할 수 있다.
- **성취문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의 문학사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데 진달래꽃의 발표 시기는 1925년으로 1920년대에는 민족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민요시가 발달하였던 시기로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 **행동문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대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에 드러난 유교적인 전통 사회에서의 여성의 자세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에 드러난 불교의 산화공덕의 이미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에 드러난 전통적인 여인의 애절한 마음과 고통을 참는 태도  
 ‘-오-’와 결합한 ‘-오리다’의 경어법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활용 내용

### 3단계- 상호문화소통 단계

언어·문화·문학학습 단계에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학습이 기본을 이루는데(김옥선, 2007) 상호문화소통 단계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 재창출하는 내재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문화학습에서는 (1) 타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2)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라는 인식 태도, (3) 새로운 것,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는 기본적인 태도, (4) 현상을 자문화의 잣대로 해석하지 않는 의사소통의 자세, (5) 문화 간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학습할 내용으로 삼는다.(이종하, 2006:113, 김옥선, 2007, 재인용) 그러므로 <진달래꽃>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학습자들이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8) 특히 진달래꽃은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던 4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이 즐기던 전통 풍속의 하나.

### ① 시적 화자와 소통하기

교사는 학습자에게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질문하면서 시적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어떤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질문하면서 시적화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거나 비판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겪은 경험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비슷한 일화 등을 모두 별로 이야기해 본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이 시의 시적 화자와 같은 처지라면, 어떤 행동과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또는 만일 당신이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상대역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 반응하겠습니까?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해 말해 봅시다’ 등의 질문에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통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

### ② 자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소통하기

이 시가 쓰인 90여 년 전 당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의식과 태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주제를 가진 자국의 시를 소개해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4단계- 내재화 단계

### ① 창작 활동을 연계한 문화 간 이해의 소통 확립

대부분 20, 30대의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5급 수준의 언어 숙달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시를 창작해 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문학적 기교를 활용해 창작의 기쁨을 누리고 고급스런 단어와 문장을 모방해 장기적으로 쓰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 창작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시 원문의 밑줄 안에 채워 넣기 형식이나 단어 대체하기 등으로 맛보기 체험을 한 후 자신의 경험이나 들은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시를 창작해 본다. 완성한 후 낭송하기와 작품 전시하기

19) 윤여탁(1999:247)에서 한국어와 문학의 통합적 학습 방법으로 제시한 학습활동인데 본 교의 상호문화소통 단계에서 가능한 활동이다.

와 문화 간 소통을 위한 교사의 피드백과 학습자들 간에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창작 성과물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직접 쓴 시를 읽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시를 들으면서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를 읽고 난 후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느낌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써 볼 수 있으며 시의 주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장르로 바꿔 볼 수 있다.

## ② 자기평가

시를 배운 후 느낌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쓰거나 시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과 자신의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 후 평가해 볼 수 있다.

## 4.3. 실제 수업 예시 및 결과

언어와 문학과 문화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언어의 기능 또한 마찬가지로 말하기와 쓰기, 듣기와 읽기 등의 언어 기능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언어 기능을 통합하고 앞에서 제시한 교수 단계에 따른 언어·문화·문학의 통합교육 방안에 따라 실제로 수업을 해 보았다.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4)에서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부터 한국 문학 작품을 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문학 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언어·문화·문학의 통합교육을 위해 언어 숙달도를 고려해 고급 학습자인 5급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하였다.<sup>20)</sup>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총 50분씩 3

20) 한국어능력시험(<http://www.topik.go.kr>)의 등급별 평가기준의 내용에서 문화에 대한 언급을 보면, 4급의 평가 기준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5급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볼 때 중·고급으로 갈수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문화요소, 문학 장르가 가지는 특성, 특히 시가 가진 특징 그리고 맥락 내에서의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

회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업 교안은 한정된 지면에 수록할 수 없어서 생략한다.

앞 절에서의 제시한 학습 설계를 중심으로 김소월의 작품 <진달래꽃>을 5급 학습자에게 적용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20~30대 남녀 8명으로, 이들의 국적은 독일, 일본, 몽골,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이다.

우선 시 수업을 하기 전, 이들의 반응에 대해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알아보았는데 한국어 수업에서 시 텍스트를 이용해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에 2명은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8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시 수업에 대한 필요성 역시 배운 경험이 있는 2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배운 적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시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이전에 시를 배웠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휘와 문법(문장구조)을 1순위로 꼽았으며 내용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시를 배울 때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시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는 질문에는 다양하게 나왔는데 ‘한국에 대한 이해, 문학적 감동과 재미, 글쓰기 능력 향상, 어휘력과 독해력 향상’ 등의 대답을 하였다. 이를 봤을 때, 학습자들은 역시 시 텍스트를 통해 실용적인 목적의 언어적 측면의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 등의 요구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모국에서 시 수업을 했던 경험으로 인해 시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가 달랐다. 우선 대만과 중국학생은 초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시를 300개를 외워야 해서 시를 떠올리면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시 수업 후 느낀 점은 ‘나라마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달라서 당시에 쓰인 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대답, ‘시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시의 내용을 이해한 후 그 배경을 상상할 수 있어서 시 적화자의 정서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하였다. 특히 중국과 대만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 최소한 300개 정도의 시를 외워야 해서 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토로했었는데 시 수업 후 부담감이 줄었고 그렇게 싫지 않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시 수업할 때 어려웠던 점으로는, '생각한 것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적절한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잘 모르거나 자신이 쓴 시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비유적 표현과 어휘 문법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 수업 후 '한국문화나 한국 문학에 대해 알게 된 점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시에 반영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깊이 알게 되었다', '옛날 한국 여자의 특징과 성격을 알게 되었으며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생각에 대해 전보다 많이 알게 되었다', '한국 문학에서는 자기 마음을 직접 다 전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답했다. 실제 수업을 한 결과물은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낙인	
<p>나 보기가 귀족원</p> <p>가실 때에는</p> <p>흔적을 남기지 말고 물러가주세요</p> <p>기억에 남았던</p> <p>희미한 행복</p> <p>안개가 땀과 가실 길에 우연히 보이오리다.</p> <p>가시는 건을 걸음</p> <p>동인 그 고통</p> <p>내 마음속에 걸고 이를 낙인이 되오리다</p> <p>나 보기가 귀족원</p> <p>가실 때에는</p> <p>그 비극을 내가 하게 하오리다.</p>	<p>할머니에게</p> <p>나 보기가 불쌍함</p> <p>가실 때에는</p> <p>눈물을 리모다고 슬프습니다.</p> <p>하늘에 무기</p> <p>무산 있어도</p> <p>들고 가실 길에 걸음입니다.</p> <p>가실은 걸음 걸음</p> <p>안심한 무산을</p> <p>작아도 무겁게 드리웁니다.</p> <p>나 보기가 불쌍함</p> <p>가실 때에는</p> <p>눈물과 감고 눈물을 흘리웁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슬픈 잠이</u></p> <p>나 보기가 애숙 댐 가실 때에는 하늘은 서글퍼 못내 눈물 흘린다.<sup>15</sup></p> <p>정원엔 봄은 천국은 잠이 가처럼 가볍게 가실 길에 있다.<sup>12</sup></p> <p>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등장미 홀로 외로워 울고만 있다.<sup>10</sup></p> <p>나 보기가 애숙 댐 가실 때에는 불어서 끈초처럼 살며시 사라진다.<sup>11</sup></p>	<p style="text-align: center;"><u>언천 공함</u></p> <p>나 보기가 우울해 가실 때에는 육리 작별할 때 울으리라.</p> <p>얼마 멀지 않은 곳 언천 공함 고독의 눈물로 흐르리라.</p> <p>가시는 걸음 걸음 행복과 슬픔 네 앞에 놓인 운명을 정녕하?</p> <p>나 보기가 우울해 가실 때에는 꿈인지 스스로에게 묻으리라.</p>
<p style="text-align: center;"><u>단물썩썩 추억</u></p> <p>나 보기가 미워 가실 때에는 너 아닌 누군가 만나리라</p> <p>우리 에 인생 쓰고도 남을 추억 아픈 상처가식결에 지워리라</p> <p>가시는 거들거름 놓인 그 추억을 그 시간이 아롱답게 아프다</p> <p>나 보기가 미워 가실 때에는 가슴이 밀어내게 그리오리라</p>	<p style="text-align: center;"><u>편드론</u></p> <p>나 보기가 무관심 가실 때에는 마음이 아프도 보내드리다</p> <p>얼마 있는 편드론 가실 뒤에 잊어버리 할리다</p> <p>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편드론 바뀌게 공허라도 잘 사들일리다</p> <p>나 보기가 무관심 가실 때에는 슬프도 꿈고 보내야 할리다</p>

## 5. 결론 및 방향

본 연구는 고급 학습자인 5급을 대상으로 피상적인 문화 소개나 교사중심의 지식 전달 방식을 탈피해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문학작품을 활용해 의사소통능력과 문화능력, 그리고 문학적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목

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문화항목 중에서 문학작품이 가지는 가치<sup>21)</sup>가 높다고 판단해 그 중에서도 특히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 문화 요소를 추출한 후 언어·문화·문학의 통합교육 방안을 마련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교육 과정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시의 문학적 특성을 이해해 상호 문화적 소통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와 문학을 통합해 실제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문학 작품’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렵다,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친숙함을 가지게 되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학을 매개로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앞으로 학습자에게는 한국어, 한국 문화, 문학의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학습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감상능력과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교수자는 문학 작품을 단순한 학습 도구 혹은 목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또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기보다 언어, 문화와 문학 교육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데 의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4)에서 선정한 문학 정전 목록 외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문인들의 작품을 추가 선정해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텍스트를 단순히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고 문학적 기법을 활용해 고급스러운 언어 교육도 아우를 수 있는 개별 작품을 통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1) 문학 작품은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체, 언어 사용역(register), 난이도 등을 제 공하며 실제적인 언어 자료로서 교육적 가치가 높으며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김은주, 2001)

## 참고문헌

### <자료>

- 고려대 한국어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6』,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 센터, 2008~2010년.  
연세대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 1~6』, 연세대 출판부, 2013년.  
서울대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1~5』, 문진 미디어, 2013~2015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6』, 이화여대 출판부, 2011.

### <단행본>

- 강현화 · 이미혜 공저,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1.  
이성희, 『한국문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이정, 2015.  
Marysia Johnson 지음 · 김희숙, 문은주 옮김, 『외국어습득 원리 의 이해- 비고츠키의 사회문화론과 언어습득』, 한국문화사, 2011.

### <논문>

- 강소영, 「수필 문학을 활용한 한국 언어 · 문화 통합 교육 방법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13권 제2호, 2014.  
김옥선, 「한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학습의 실천」, 언어와 문화, 제3권 2호, 2007.  
김은주, 「영어 교실에서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문학작품의 활용 방안」, 교과교육학연구 제5권 1호, 2001.  
김진호, 「텍스트를 활용한 쓰기 교육 방안 모색을 위한 사전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융합 인문학 제2권 제1호, 2014.  
신운경, 「한국어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 · 쓰기 통합 방안」, 작문 연구 제7집, 2007.  
양영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시론, -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언어과학 제20권 1호, 2013.  
오지혜 ·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131, 2007.  
우혜경, 「문학지문을 활용한 다문화 중학생의 한국어교육」, 청람 어문교육 44집, 2011.  
유현정,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방안 연구」, -비교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2015  
윤여탁,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 문화학 제10권 제2호, 2013.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제6집 1권, 1999.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 제14집 제 1권, 2003.  
윤여탁 · 유영미 · 박은숙,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4집, 2014.  
이가원,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방안 연구- 외국인 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 활동 중심으로」, 한국문예비 평연구 제38집, 2012.  
이정원,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27집, 2012.

임금복,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과 한국학의 한 통로로서 한국문화 - ‘연세 한국어’에 나타난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국제한국학연구4, 2010.

한옥순, 「한국어교육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문 작성능력 방법 연구 -김춘수 <꽃>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8집, 2013.

Christine Savidou, An Integrated Approach to Teaching Literature in the EFL Classroom, The Internet TESL Journal, Vol. X, No. 12, 2004.

**A Study on the Methods of Korean  
Language • Culture • Literature Integration**  
– Focused on Kim, soweol <진달래꽃> –

Kim, Mi-su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stablish combined methodology of language, culture and literary for the level 5 foreign Korean learner using <Jindallaekkot/Azalea> poem of Soweol, Kim. This study is based on current research position in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discussion of the existing learners. It is foun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combined education is needed for the effect maximization of the language, culture and literary education since literary text is not only a tool for just language education but also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As a result of actual poem class following the suggested education methods in this study, in the aspect of language education, there are significant effect for learning high level vocabulary on the basis of the expression and literary vocabulary from literary text. In the aspect of culture education, the learners can know the value of Korean through the attitude toward love and parting of the past traditional woman in the attitude of a poetic narrator and deeply understand Korean culture through the comparison with homeland and the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via poet “Soweol, Kim”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aspect of literary education, a true combined education possibility is found by promoting the ability creating high level vocabulary through the education of metaphors and symbols for

expressing basic formality, element making rhythm, meaning and subject of poem.

[Key words]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Communication ability, Culture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Literary text, Poem, Combined methodology, Korean Culture

이 논문은 11월 11일 접수되어 12월 10일 2차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필자 정보〉

성명: 김미선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메일: misonpaul@hanmail.net